

이슬람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와 대비책

최기남*

요 약

테러리즘의 핵심적 목표는 계획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공포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등의 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은 폭력적 충격을 통해 대중적인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또한 테러리즘은 현대문명의 발전과 국제사회구조를 반영하면서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유기체적으로 진화하게 된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단으로 진화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를 통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의 전략에 부합됨으로써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노력은 무력에 의한 조금한 정책을 십 수년간 실행하여 왔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살폭탄테러의 예방은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범행동기를 고려하여 병리현상의 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종교적 이질감과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자살공격의 기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Psychological Motives for Suicide Terrorism of Islamic Suicide Terrorists and Countermeasures

Choi, Kee-Nam*

ABSTRACT

The key objective of terrorism is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certain political, ideological, or religious interests through deliberate social chaos and the spread of fear. Accordingly, terrorist groups rally the means and methods capable of spreading fear among the public through shocking violence. Consequently, as terrorism manifests the progress in modern civilization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its concepts, means, and methods evolve organically with the prog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terrorism include that it has evolved as a means of war against countries by non-state militant groups, and suicide terrorism is spreading like epidemic as it fits the strategies of Islamic extremist and terrorist organizations as a part of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terrorism.

The humanity's efforts to eliminate the threat of terrorism led to decades of implementing premature policies of military force, but they were found ineffective and resulted in the spread of extreme threat of suicide terrorism. For prevention of suicide terrorism, the efforts must be made to dismantle the basis of suicide attacks through addressing religious alienation and antipathy against a civilization using the notions similar to treatment of pathology considering psychological motives of suicide terrorists.

Keywords : Suicide terrorism, jihad, suicide terrorist, motivates for committing suicide terrorism, psychology of suicide terrorist

접수일(2015년 10월 8일), 수정일(1차: 2015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2015년 10월 31일)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서론

테러리즘의 핵심적 목표는 계획적 사회혼란과 심리적 공포의 확산을 통해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등의 이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집단은 폭력적 충격을 통해 대중적인 심리적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 동원한다. 21세기 벽두에 시작된 두 차례의 테러와의 전쟁은 군사적으로는 일방적인 승리가 선언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지구촌의 테러발생 뉴스는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다. 이는 인류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노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도 테러의 심리적 공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테러리즘의 새로운 양상은 테러의 목적과 관계없는 불특정 일반대중에 대한 무차별적 희생을 강요하며, 재난이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고, 테러리스트 자신이 산화하는 자살 폭탄테러리즘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오늘의 자살폭탄테러는 세계적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배타적인 종교적 이념 갈등에 기인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제국의 기독교 문화권과 중동 이슬람권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시현되고 있다. 이런 위협상황은 지극히 산업화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힘의 논리에 의한 합리성이 종교적 영웅주의에 의한 무슬림 형제의 순교자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 자살 폭탄 공격에 대한 이해부족과 군사력에 의한 대응 이외의 실효성 있는 대안부재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자살폭탄테러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만들어졌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전 행정관료 아부 아람(Aram)은 '문화현상으로서의 자살테러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와 계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고민은 어떻게 젊은 군인들을 테러와의 전쟁에 나가 싸우도록 설득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고민은 서로 먼저 성전에 나가려고 하는 젊은 이들이 어떻게 차례를 지키도록 할 것이냐이다." 라고 말한바 있다[1]. 또한 아부 아람은 "과거 하마스는 자살폭탄테러를 원하는 희망자를 찾기 위해 6개월씩이나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마스가 충분한 폭탄만 갖고 있다면 이슬람주의자나 다른 그룹들이 하루에 1백회의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2]. 뉴욕타임스는

2005년 7월 13일(현지시간)자 보도를 통해 "자살폭탄 공격을 '최고의 헌신'이라 여기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은 자살폭탄공격의 대상인 서방 국가들에게는 '최대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살폭탄테러로 순교하는 자들은 팔레스타인 전 사회가 존경하는 인물로 영웅시되고 있다. 순교자의 어머니들은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하려는 자식들과 함께 미리 사진을 찍어둔다. 또 전통적인 아랍세계의 문학과 시, 경구 등을 되새기며 또 다른 복수를 다짐한다[2].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잉태한다. 이슬람 과격테러 단체인 하마스의 설립자 샤이히 아흐메드 야신(Jassin)은 스스로 자살폭탄테러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살라흐 셰하데(Schegade) 하마스 군의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하자 자살폭탄공격의 중지선언을 취소했다. 중동의 이슬람테러리즘은 이기기보다 적에게 최대의 타격을 줌으로써 합리주의적인 서방세계가 버티기 힘든 경제적 상황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제 자살 폭탄테러는 세계 전 지역으로, 이슬람 2-3세에 의한 종교적 이념으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종교적 이념과 민족, 경제적 이권과 국제적 개입, 정의와 복수, 가난과 무지 등이 난마처럼 뒤엉킨 상황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현대 테러리즘의 최대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슬람 성전에 의한 자살폭탄테러범의 범행심리와 동기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군사작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대테러 전쟁방식에 반하여 근본적이며 실효성있는 테러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헌 연구와 보도,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현대테러리즘의 개념상의 진화 양상을 고찰하고, 자살 폭탄테러사건의 원인과 과정의 기본시스템을 고찰하여 테러범의 범행심리적 동기를 분석,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살폭탄테러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로는 강욱, 전용태의 자살폭탄테러자의 동기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등을 의미있게 검토하였다. 이번 연구의 산물은 자살폭탄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테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2. 자살폭탄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

2.1 현대테러리즘의 개념적 진화

2.1.1 테러리즘의 전통적 개념

테러리즘 문제는 현 인류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가장 중요한 숙제이며, 테러리즘의 개념에 대한 정립과 합의는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3]. 왜냐하면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테러 협약에 핵심적인 대립과 불합치의 원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의 정립은 학문적으로나 국가적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시행, 국제간의 테러 방지를 위한 협약을 위해 많은 논의와 협상이 있어왔다. 그러나 UN특별총회의 논의를 비롯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바 있다. 테러리즘의 동기, 대상, 범위, 주제, 이념 등의 포함 여부, 그리고 국제정치적 구조상의 이해대립과 가치의 상충, 학자들과 테러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달리 정의됨으로써 이에 관한 연구와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4]. 최근 한국 국립방재연구원 연구과제로 시행된 테러리즘의 의미정립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제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국가별, 기관별, 학자별 정의와 뉴테러리즘이라는 현상과 특징에 대하여 폭넓은 고찰을 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뉴테러리즘시대에 맞는 테러의 의미를 정립한 결과, “테러는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적 수단 또는 비폭력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의 구성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다[5].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모든 정의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보편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낙인은 테러공격을 받은 국가나 그 동조세력이 붙인 일방적인 꼬리표에 불과할 뿐이다.

현대테러리즘은 공포를 일으키는 기술적 행위이다.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게 물리적 충격을 통하여 심리적인 공포를 유도한다. 따라서 일반시민에게 공개된 무대가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동의와 지지, 협박이 포함된 경고 또는 본인의 태도결정을 강요하게 한다. 즉 공포의 심리적 확산이라는 형식으로 작동하는 물리적 폭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1]. 테러를 야기하는 테러집단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념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민간인이나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가치 판단을 내리며 그 자신 혹은 자신들의 동조자들의 생명 또한 희생되어도 좋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또한 요인의 암살과 같은 폭력적 행위로 인한 직접적 효과 보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대중의 공포심을 더 큰 효과로 보며 이러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6].

현재까지 정리되고 언급된 전통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리즘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의가 공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불법적 폭력의 행사와 심리적 공포감의 조성, 불특정다수의 피해 유발, 대중적 공포를 이용한 정치성있는 목적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전통적 개념의 테러리즘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혹은 상징성 있는 인물이나 기관, 시설 등의 목표물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물리적, 심리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1.2 현대테러리즘의 전쟁수단으로의 진화

현대는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시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선전포고 없이 시작되었지만 명확한 평화조약도 없이 끝났으며, 냉전이라고 하는 불명확한 전쟁이 지속되었고, 특히 걸프전 이후 현재까지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지역, 등 중동지역은 전쟁과 평화를 구분할 수 없는 불법의 폭력적 대립상황에 이어져왔다[7]. 인류는 21세기 벽두를 테러와 대테러전쟁으로 시작하였고, 냉전체제의 해체 후 새로운 국제정치 구조는 인류사회의 질서를 제어하는 화두로 테러리즘을 상상시켰으며,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공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3].

테러리즘의 개념은 인류사회의 문명과 국제사회의 정치구도, 종교적 이념과 사상 등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유기체적으로 생존하고 변화한다[8]. 현대테러리즘의 개념은 새로운 양상의 전쟁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이 기존의 전쟁방법을 대체하는 유효한 저 강도 전쟁수단이며 하나의 현대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9]. 국가만이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다. 군사전문가뿐 아니라 정치학자들도 국가만의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점권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현행법상 불법적이라 해도 근대적 관점에서 제국주의적 지배에 맞서 폭력을 통해 저항하고 정치적 의사를 나타내고자 했던 비국가적 행위자인 혁명적 애국주의자들의 폭력의 사용

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발생한다[10]는 이견이 제기되었을 뿐이다. 인도 출신의 국제정치전문가이며 존스 홉킨스대 교수인 Sunil Khilnani 박사는 테러리즘은 근대적 정치의 독특한 형태이다. 테러리즘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국가의 능력과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위협한다고 설명한다. 정치는 무혈의 전쟁이며 테러리즘은 유혈의 정치이며 전쟁의 한 수단이다. 따라서 현대의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는 비 국가 전쟁주체인 테러리즘이 등장한다. 비 국가 전쟁주체인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가나 정치규율에 신경이 쓰이거나 전쟁규율에 억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11]. 따라서 현대의 저 강도 분쟁의 주된 테러리즘은 국가대 비국가 무장테러단체의 비대칭적인 전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폭력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이나 합법성의 판단 기준이 없고, 희생자 또한 전투원이나 비전투원의 구별이 없는 불특정지역의 무차별적 대량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테러리즘은 기술적으로 목표의 선택이나 폭력사용의 방식에서 정치적 여건이나 기술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전쟁의 비대칭화는 테러리즘의 기술적 독립을 가시화 하였고, 과학 문명의 고도화는 작은 폭력집단의 대항력을 신장시켜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합법의 독점적 폭력을 대결의 상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의 발달은 각종매체를 통한 일반대중에 대한 공포를 증폭시켜 정치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불법무장테러단체의 국가와의 비대칭적인 전쟁에서 테러리즘이 가장 매력적인 전쟁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1.3 자살폭탄테러의 정치수단으로서의 의미

Terrorism의 본질은 무력적 지배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이며, 큰 무력에 대한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비대칭적인 대결방식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변화가 불가능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질서에 대한 약자, 피압박집단의 경제성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방식이다.

현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어떠한 국가보다 가장 막강한 제국이며, 현재 세계 200여개 모든 국가가 지출하는 전체 군사비의 반 이상을 사용하는 거대한 군사대국 미국의 군사력을 위주로 한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기조는 냉전체제 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구조적으로 Terrorism과 상충될 수밖에 없었고,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배타적 이질종교집단과의 이념이 충돌함으로 인해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위기가 조성되고,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순환되면서 위협

이 심화되는 경향으로 시현되고 있는 것이다. 전쟁이 물리력에 기반한 강압의 직접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면 테러리즘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심리적 압박으로 정신적 차원의 변화에 작용한다. 테러리즘을 특징하는 고전적인 행위 유형은 의미가 없다. 결국 테러리즘을 규정하는 특징은 폭력행위의 자체보다 그 행위가 의도하는 정치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10]. 따라서 테러리즘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총체적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해야하는 전쟁의 한 축으로 보아야 한다.

종교적 이념의 상충에 의한 갈등과 대립은 극단적인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종교적 이념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최상의 단계이며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8]. 무력적 불균형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하는 대결양상은 테러리즘이며, 이런 테러리즘의 자살공격방식은 민족적인 영웅주의나 종교적인 이념에 의한 극단적 선택인 것이다. 자살공격 테러가 확산되면서 자살폭탄테러가 합리적인 전쟁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공통인식이 형성되었고, 다수의 테러단체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종교, 국가, 민족에 저항하는 테러리즘을 합법적인 전쟁의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살폭탄테러를 조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12]. 자살폭탄 공격은 정규군이 아닌 게릴라 집단의 전투방식이다. 무력 비대칭으로 인한 좌절감과 패배감에서 기인한다. 냉전 후 미국의 군사력 위주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이 가시화된 1990년대 이후 기록적으로 증가된 발생건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리즘학자인 Rapoport가 주장하는 현대테러리즘의 제4물결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종교 간의 갈등이 주 원인이며, 9.11 WTC Terror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며, 종교적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정치행위의 일단이다[13], 또한 오늘날의 테러는 직접적인 요구조건 없이 희생의 강요나 시각적인 공포를 통해 제3의 동조자를 구하고, 생명을 버리는 순교를 통해 동일시의 확산을 추구한다.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없는, 목표와 동기가 불분명한 테러는 타협의 여지나 협상대상이 없다. 더구나 유행처럼 번지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목숨을 건 자살폭탄테러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극단의 공포 그 자체이다. 군사력의 현격한 불균형 상태의 비대칭적 전쟁 상황에서 비국가적 테러집단의 종교적 이념에 의한 순교적 자살공격은 가장 유용한 기술적 대결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심리적 공포감의 확산과 대중의 동일시를 유발하는 정치적 행위로 약자의 유효한 테러수법이 될 수 있다. 이슬람테러조직은 자살폭탄테러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지하드의 명분으로 치부하며, 이 교도와의 무력불균형 상태의 전투상황에 현실적으로 가장 잘 부합된다고 보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2 자살폭탄테러리즘에 대한 이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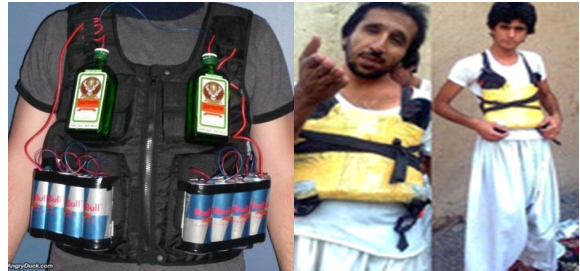
2.2.1 자살폭탄테러의 유래

자살폭탄테러란 공격자 자신의 죽음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폭탄을 이용하여 대상을 죽이거나 심대한 피해를 강요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목표달성을 위한 공격행위를 말한다. 자살공격 행위자는 유도탄의 유도장치로서 추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류 최초의 자살테러공격은 성경에 기록된 삼손이 구 팔레스타인 남부에 살던 민족이며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이던 필리스타인(Philistaine) 재판관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12]. 역사적 기록으로는 자폭공격은 13세기 십자군 원정 때 이슬람을 침공한 유럽 성전기사단의 군함자폭공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대의 자살공격은 2차 세계대전 시 일본 가미카제 조종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3년 레바논 미국 해병대 막사에 대한 폭탄적재차량 추돌에 의한 자살공격은 미군 58명을 포함하여 다국적군(MNF) 299명의 죽음을 초래함으로써 뉴테러리즘의 기점으로 자살폭탄테러의 서막을 알렸다. 80년대에 이르러 폭발물이 든 소포를 목표 인물이나 시설에 배달하거나 민간차량 내에서 폭발시키는 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발생한 9.11 WTC 테러는 자살테러의 결정판 이었고 현대 테러리즘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의 자살폭탄테러 공격은 폭탄벨트를 이용한 인원의 납치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폭파, 폭탄 적재차량을 목표물에 추돌하거나 피해 가능지역 내 폭파, 항공기내 폭발물 반입을 통한 공중폭파 등과 폭발물과 같은 위험물 적재 항공기 등을 목표물에 가미카제식으로 추돌시키는 등 현대의 문명과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 특히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신의 몸에 폭탄을 휴대하고 있는 자살폭탄테러범의 폭탄은 “사자의 스위치(Dead man’s switch)” “사자의 손잡이(Dead man’s handle)” “그림자 폭탄(Shadow Bomb)”이라고 부르며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그 피해는 불특정 일반대중에 전쟁을 방불케하는 무차별적 대규모 재난을 야기한다. 공격자에게는 민족적, 종교적 자긍심으로, 공격대상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극한 심리적 공포의 대상으로 작용한

다. 자살폭탄공격은 인터넷을 통해 종교적으로 이념화되고 자원자가 접촉되며, 테러집단에 의해 지령되고 폭탄벨트 등 수단 방법이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자살폭탄테러용 폭탄벨트는 [사진1]과 같은 모습이다.



(그림 1) 일반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의 폭탄벨트와 자살폭탄테러리스트의 모습 출처; Internet 이미지 검색

2.2.2 자살폭탄테러 및 유사테러의 현황과 유형

자살공격은 여러 가지 형태와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폭발물을 이용한 자살공격은 가장 비근한 형태이다. 이는 테러집단의 입장에서 비교적 폭발물을 구하기가 쉽고, 은폐가 용이하며, 임검범으로 폭발현장에서 범인이나 모든 증거가 소멸될 뿐만 아니라 공포감을 동반하는 현장 연출과 최적의 시간과 장소의 선택이 가능하며,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의한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함으로써 대중적 동일시와 정치성있는 동조세력의 지지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자살폭탄테러나 각종 문명의 이기를 이용한 공격자의 죽음을 전제로 한 테러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류해 본다면 [표 1]과 같다.

<표 1> 자살폭탄테러와 유사테러의 유형과 대표적 사례

유형	대표적 사례	테러단체/배후
폭탄 적재차량을 목표물에 추돌	1981.12.15.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을 레바논 소재 이라크 대사관에 추돌	이슬람 원리주의 알 다와 (A I Dawa) 자신 소행 주장
	1983.10.23. 폭발물 적재 트럭의 베이루트 소재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 추돌	헤즈블라 (Hezbollah) 소행
목표물 주변 폭발물 폭파	1983년 베이루트 소재 미군 대사관 정문근처 주차된 다이내마이트 적재 차량 폭파	헤즈블라 (Hezbollah) 소행

폭탄 적재 선박의 추돌	2000.10.12.예멘의 아덴항에 정박 중인 미국의 DDG-67 USS Cole함에 폭탄적재 보트의 자살폭탄테러 공격	알 카에다 (Al-Qaeda)의 소행으로 추정
폭발물 반입 목표물 폭파	1991.5.21. 인도 남부 타밀 나두 주에서 인도 총리 라 지브 간다가 꽃다발에 폭탄을 장착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	타밀 엘람호랑이(LTTE) 반군
	2009.3.16.예멘 하드라마우트 주에서 폭탄벨트를 착용한 18세 청년이 한국관광객 사이로 들어가 자폭테러	알 카에다 (Al-Qaeda)의 소행
폭탄벨트를 이용한 인원납치	2014.2.8.터키 항공사 페가수스의 여객기기내에 폭발물 휴대 반입, 승객 110명 납치시도, 터키 공군 F16출동 비상 착륙	납치 미수/범인 체포
폭탄벨트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의 폭파	2010.3.29. 모스크바 지하철 내부에서 폭탄벨트를 착용한 18세 소녀를 포함한 다수 여성범인이 연쇄적으로 자살폭발테러 자행	체첸반군 단체인 검은 미망인 조직
항공기내 폭발물 반입 공중폭파	1987.11.29. 바그다드 출발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KE858편(보잉 707기종)에 북한 공작원의 폭발물 반입으로 인도양 상공에서 폭발	북한 공작원 김현희 소행
	1988.12.31.런던 발 뉴욕 행 팬암기가 수화물 내 은닉 반입된 폭발물로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	리비아의 가다피 국가원수 지시
항공기납치 목표물에 추돌	2001.9.11. 미국뉴욕의 WTC에 납치된 항공유 가득찬 비행기를 추돌시켜 탑승객을 붕괴시킴	알 카에다 (Al-Qaeda)의 소행

출처;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 재구성

2.2.3 자살폭탄 테러리즘의 성향과 전망

현대테러리즘연구소 최진태박사가 2004년까지 10년 내에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살폭탄테러리즘의 주요 성향은 테러범의 연령은 10-20대의 미혼자가 많다[14]. 특히 개인이나 가족, 민족 등의 희생에 대한 복수와 적개심을 가진 젊은이들이거나 [15], 종교적 이념에 의한 지하드의 자원자들이다. 범인의 성별은 수적으로 남성이 많으나 여성테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첸 블랙위도우(BlackWidow)¹⁾는 여성만으로 구성된 자살폭탄테러

조직이다. 사건의 발생 시점은 아침시간대가 많으며, 방법으로 폭발물을 적재한 운송 수단을 목표로 추돌시키거나 인접지역에서 폭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나 현대 문명의 모든 이기를 동원하며, 최근에는 주로 폭탄벨트나 조끼를 착용한 공격자가 목표에 접근하는 그림자형 자살폭파를 감행한다. 공격목표는 전통적으로 군사시설이나 상징성있는 정부시설을 공격하였으나 근년에는 시민들의 다중운집시설,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 등 불특정다수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소위 Soft Target²⁾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자살폭탄공격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이념화된 이슬람 2-3세에 의한 서방세계로의 확산, 다수 일반 시민 이용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뿐만 아니라 동일종교와 민족내의 종파간의 대립과 갈등에 의한 이슬람권 내부 테러리즘의 악순환, 테러조직에 의한 미성년자의 납치와 세뇌에 의한 집단주의적 강요와 협박, 타조직원의 원격 폭파에 의한 위장자살 공격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살폭탄테러는 당사자가 죽음을 전제로 한 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테러방법이다. 따라서 테러의 본질이자 목표인 최상위의 공포를 확산시키며, 같은 여건의 계층이나 무리들에게 동일시를 유발한다. 더욱이 암울하게 하는 경향은 IS, 보코하람 등 이슬람계국 건설을 지향하는 점령지역을 가진 테러집단이 등장하면서 이에 가담하는 자원자들의 열풍이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전망은 테러집단들이 테러리즘을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는 서방제국에 대한 합법적 전쟁의 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의 각종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에 준하는 대규모 타격이 가능해 짐으로써 국가대 비국가 무장테러단체의 물리적 대결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무장테러집단이 자살폭탄공격을 전승수단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더욱이 종교적 이념화에 의해 자살공격자원자들이 자살테러가 단순하게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영웅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

미망인들로 조직되어 전문적인 폭발물과 테러교육을 받은 후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선발이 아닌 자원선출방법으로 공격에 투입되며, 투입 전 사진촬영, 비디오촬영, 육성녹음을 하고 공격지점에 투입, 폭탄이 가득한 자살용 폭탄조끼를 안에 입고 격발기를 소매를 통해서 손에 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 러시아 지하철 폭탄테러 용의자로 공포의 대상임
2). 군사용어로 비무장 또는 무방비 대상을 말함, 현대 테러리즘에서 균경의 철저한 경계를 받고 있는 군사시설, 정부기관 등을 지칭하는 Hard Target의 상대적 용어로 민간시설, 시민운집 지역 등을 말함

1).체첸의 자살폭탄 테러단체 “검은과부”. 나이 18-20세의

후에 그의 행위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의 사생관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살폭탄공격 방법의 테러는 이슬람권 내외부에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며, 중동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류에 자살공격에 대한 테러공포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자살폭탄테러범의 범죄심리와 동기 및 시행 메커니즘 분석

3.1 자살폭탄테러의 범죄심리

심리적 동기는 행동의 원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났을 때 범죄학자들은 그런 행동의 원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며[16], 행동의 심리적 동기를 추적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한 인간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실증주의 기법으로 자살을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의 결과로서 4가지 형태의 사회적 범주로 분류한 바 있다. 첫째로 이기형 자살(egoistic suicide)은 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낮고,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집단 내에 강하게 통합되지 못하고 고립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살로서 가장 많은 경우이며, 둘째는 이타형 자살(altruistic suicide)로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집단 내에 지나치게 융합, 결속되어 개인의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할 때, 그 집단을 위해 희생적으로 자살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나 이슬람 자살폭탄테러범의 순교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의 아노미형 자살(anomic suicide)은 사회적 규제가 부족할 때 발생하며, 개인이 사회에 대한 적응이 돌발적으로 차단, 왜해되어 자살하는 것으로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산, 사회경제적 공황상태, 이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력 인사의 자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는 숙명적 자살로 개인이 사회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될 때 발생한다. 개인에 대한 억압은 운명 혹은 사회 앞에 무력감으로 작용하게 됨에 기인한다[17].

자살공격의 범죄심리를 유년시절의 부모의 이혼이나 사고, 전쟁 등에 의한 자아형성의 결손, 또는 내성적 성격의 인간관계의 결핍이나 비 이상적인 자아의 형성으로 인한 극단적인 예민성 등으로 보는 국내 연구가 있다[18]. 그러나 중동이슬람의 자살폭탄공격은 일반적인 범죄적 공격성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조지

워싱턴대학의 정치심리학교수 제너럴 포드박사의 견해는 자살테러범들이 우울과 절망, 자포자기의 심리적 상태에서 범죄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의학적인 대상이 되지도 않는 정상적인 상태로서 하나의 사회현상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19]. 또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심리학교수 Ariel Merari박사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자살테러공격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자살폭탄공격자들은 민족과 종교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겠다는 희망을 나타낸 후에 자살폭탄테러 자원요원으로 차출된다. 이들의 연령이 17세-38세이며 평균연령은 22세이고, 사회 경제 및 교육의 정도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교육, 경제환경, 성격에서 모두 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순교가 가족과 동족의 미래를 구할 것이라고 믿는 이슬람교도였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도 일부 있었다. 결코 자아형성이나 인간관계 결핍이 없는 정상인들이었다[20]. 1980년-1990년대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 사망한 Hezbollah 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전사들은 가난한 가정 출신들이 적었고,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중등교육까지 받은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살폭탄테러범의 교육정도나 경제 사회적 여건은 정상적이었으며, 지역사회의 종교적 이념의 물입이나 영웅적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극히 평범하며 교육받은 정상인들이 자살폭탄테러의 자기생명을 포기하고 희생적인 테러에 자원하기까지는 극단적인 심리적 조작의 사회적 배경이 존재한다. 미국 미시건 대학의 Scott Atran 교수가 9.11 WTC 테러범 중 체포된 생존자를 심문했다. 이상주의적이며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강한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소외자에게 소위 터널(범죄시행 메커니즘에서 설명)이라고 칭하는 심리적 조작과정을 통과하면 종교적 집단주의에 동화되고 자발적인 영웅주의적 테러심리가 형성된다[21]. 이런 심리적 조작과정은 무장테러단체의 극단적 세뇌과정뿐만 아니라 이슬람지역의 종교적 이념과 사생관, 기독교 서방세계에 대한 적대감, 개인적 모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자살공격의 범죄심리는 개인이 사회집단 내에 지나치게 융합, 결속되어 개인의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할 때, 그 집단을 위한 희생으로 나타나는 이타적 자살로 분류되며, 종교적 이념화와 순교적 사생관은 자살공격을 감행하는 본질적인 범죄심리로 행동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 이슬람테러리즘의 자살폭탄테러

범의 범죄심리는 이타형 자살(altruistic suicide) 심리로 볼 수 있으며, 종교적 이념화에 의한 개인의 자아가 함몰된 영웅적 순교심리와 테러조직의 광신적 집단양심의 부추김과 강요, 협박 등이 결합된 희생적 산물이며, 자살폭탄테러범은 집단적 사고에 의한 종교적 제물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적 이념화와 순교적 사생관은 자살공격을 감행하는 자의 본질적인 범죄심리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행동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3.2 자살폭탄 테러범의 범행동기

공격성이란 물리적, 심리적 어떤 형태이건 타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폭력범죄를 일으키는 기본요소이다[22]. 인간의 공격성은 때로는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살상을 가져오는 전쟁을 통한 상대를 응징하거나 굴복시키는 폭력행위로 구성되는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23]. 테러리즘은 공격성에 의한 유형의 정치행위이며 현대의 전쟁방식으로 사회의 변혁이나 역사의 진화를 요구한다. 자살폭탄 공격 행위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심리는 개인과 집단 내 외의 복잡한 상황이 작용하게 되나, 실행의 직접적인 동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런 동기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몇 가지 주요요인에 대하여 언급한다면

3.2.1 순교적 영웅주의

세계 최고의 대학이며, 이슬람 최상의 권위를 자랑하는 예집트의 알 아즈하르대학의 종교적 법학자들이 알 아슬람 신문에 “테러리즘이 성전인가?(Is Terrorism Jihad?)”라는 글을 기고했다. 제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알라의 길에서 지하드는 신의 말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슬람을 확산시켜 이슬람 국가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고, 세계 무슬림들을 침략하는 자들에 대한 응징이다. 무슬림형제들은 알라의 가르침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타협 없이 이교도들과 대적하며 그들을 물리치고 그의 땅을 지배한다. 신을 위한 지하드는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이다. 샤리아법에 따라, 이교도와 싸움에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무차별 부수는 것이 요구된다. 지하드를 샤리아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테러리즘이라고 볼 수 없다. 지하드와 테러리즘은 많은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지하드는 의무이고 테러리즘은 금지사항으로 어떠한 연결도 없다. 서양 제국주의는 지

하드와 테러리즘과의 정확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들이 지하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이슬람법에 의해 지하드는 무슬림들의 의무라는 것, 두 번째 이슬람의 사고방식에서는 이교도에 대한 테러리즘을 사용한 지하드도 애타적인 행동으로 세계의 옳음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라는 무슬림들이 지하드를 하도록 명령했고, 이는 모든 우려에 대한 선이며, 영광스러운 죽음이자 알라의 말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이다[24]. 이는 이슬람테러에 대한 의미와 가치, 시행 명령에 해당한다.

자살테러는 그들이 속한 사회와 종교적 사생관에 기인한다. 이슬람 과격단체의 외부와 단절된 무지한 행동대원들이 자살폭탄테러를 하는 이유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이 시내물처럼 흐르는 천국에 가서 무수한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천상낙원에 갈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런던의 핀스베리파크 모스크 밖에서는 이슬람 프로파간다의 비디오를 사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가장 잘 팔리는 내용은 자살폭탄 테러범의 생애 마지막 순간들을 담아놓은 필름이다[25]. 이 비디오의 영상에 의하면 자살폭탄테러범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천국의 문에 들어서는 환희에 찬 얼굴이었다. 종교적 순교 순간의 영웅주의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슬람의 지하드는 이교도와 전쟁에 서슴없이 목숨을 바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3.2.2 개인적인 원한이나 모욕에 대한 응징과 복수

많은 언론매체의 관점이나 학자들의 견해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느끼는 모욕감과 복수심리가 자살폭탄테러를 끊이지 않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중동 이슬람 지하드의 배경에는 미국과 기독교 서방세계에 대한 증오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종교적 대립과 십 수년간 지속된 테러전쟁의 결과물이다. 자살폭탄테러 자원자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모욕에 대한 응징과 복수, 전쟁 희생자의 가족이나 종교, 민족의 복수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남쪽 지역에서 2014년 9월 8일(현지시간) 아프리카연합(AU)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한 민간인 12명이 숨졌다. 이번 자살폭탄 테러는 미군 특수부대가 앞서 지난 1일 소말리아 내 알카에다 연계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알샤바브의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 작전을 벌여 이 조직의 지도자인 아흐메드 압디 고다네(34)를 사살한 이후 처음 나온 공격이다[26].

Spekhard와 Akhmedova(2005)의 자살폭탄테러를 자행한 체첸인의 가족들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적어도 47%)의 경우 조상, 가족, 연인 등의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Trauma)를 가지고 있으며 자살테러로 이어 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체첸 블랙위도우(Black Widow) 자살폭탄 테러단체이다[13].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의 악순환이 십 수년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응징과 복수의 원한관계는 부지기수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살폭탄테러의 자원자는 영웅으로 치부되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2.3 가난, 무지와 집단주의의 강요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와 종속의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 게릴라의 대륙으로 만들었던 마야사빠띠스타 민족해방군(EZLN; Zapatista National Liberation Army) 등의 무장봉기는 가난과 불평등이었다는 연구가 있다[27]. 현재의 중동의 자살폭탄테러범을 일명 가미카제라고 부른다. 이들의 가미카제는 어린 소년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명이 각국테러에 동원된다. 이들의 배후에는 IS, 탈리반과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이 있으며 가난과 마드라사의 종교적 극한 이념에 의한 세뇌, 지하드에 대한 사생관이 작용하고 있다. 이슬람 자살폭탄테러의 훈련 캠프는 이슬람성지로 불리우던 와지르스탄 캠프가 미군의 공격으로 와해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에 산재해 있으며[28], 어린 미소년들을 현실과 차단하고 가미카제식 자살공격자로 양성하고 있다. IS나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적 이슬람테러조직이 어린 소년 소녀들을 자살폭탄테러에 강요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정신장애아를 포함해 어린아이들을 자살폭탄 공격과 전장의 인간방패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밝힌 바가 있다. CRC는 2015년 5월 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IS가 납치한 어린아이를 성노예로 팔거나 십자가 처형과 생매장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CRC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IS에게 이용당하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9]. 이처럼 자살폭탄공격에 동원되는 어린아이들은 가난과 무지속에서 정의에 대한 판단이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육되고 세뇌되어 종교적 집단주의와 무장테러단체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희생물이 되고 있다. 이런 집단주의 세뇌과정을

터널이라 칭하고 있으며, 극단적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3.2.4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반발

서방세계에서 태어나고 성장, 교육받고 생활하는 이슬람2-3세대들도 대부분 민족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소수자로서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며 소외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폭력적 무장테러단체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메카니즘은 첫째 폭력적 억압이 낳은 생존권적 저항의 산물이거나, 둘째 특정 정치집단의 핵심에서 배척당한 이들의 임의적 구성조직이다. 셋째는 막강한 국가권력의 이해관계에 의한 권력의 대리집행인으로 만들어진 보조물이다[30]. 차별이나 소외감은 변화에 대한 막연한 갈망이나 기존 세력이나 권력, 사회체계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도처에서 차별과 박탈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무슬림 2-3세대들은 언제라도 주변의 기존체제에 대항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저항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는 평범한 이웃의 무슬림 젊은이가 자살폭탄범인으로 등장하거나, IS에 자원합류하는 세계의 젊은이들 사고방식, 무슬림 형제애의 자살폭탄공격을 시행하는 자원자들에 대한 동일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 자살폭탄테러의 범죄시행 메카니즘

무장테러단체는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형성된 테러집단 간에는 외적인 선명성과 영향력 경쟁을 하고 있으며, 집단 내에서도 종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끊임없는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테러집단의 조직과 결속은 정규대원과 비정규대원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투쟁노선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조직이 분화하고 재결성된다. 조직의 작동원리는 극단적인 폭력의 행사이며, 폭력의 권력 선명성이 조직의 노선과 지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30]. 때문에 테러집단은 가장 극단적인 폭력, 절정의 공포를 통한 조직 간의 경쟁과 조직 내의 투쟁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건의 자살폭탄테러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급진주의적 종교, 계급, 인종, 민족성 등 집단주의에 몰입된 정체성이 무고한 일반 피해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정해 버릴 수 있다. 이런 극단주의적 논리에 함몰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 채 타인을 죽일 수 있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자살이나 무장하지 않은 민

간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죄악으로 간주한다. 꾸란에서 무슬림의 인티하르(intihar;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자살)는 철저히 금지한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도 자살론의 종교와 자살의 관계에서 이슬람교도의 자살률이 가장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티샤드(istishad; 알라의 이름 아래 이뤄지는 자기희생적 죽음)는 이를 허용한다. 자살 폭탄 공격은 이슬람의 공동선을 위한 죽음이므로, 그 지하드를 실행하는 자는 순교자임으로 추앙받는다. 그들에게 '지하드를 수행하다 맞이한 죽음'은 곧 천국으로 가는 빠른 길이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이미 현실의 삶이 신을 위한 성스러운 죽음만 못하기 때문이다. Al-Qaeda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1996년 미국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면서 "무슬림 청년들은 삶만큼 신을 위한 죽음을 사랑한다"며 자살폭탄테러를 조장하는 파트와를 내리기도 했다. 종교적 집단논리는 자살공격을 시행하는 극단적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자살 공격을 시행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기준은 지원자의 경력이나 시행능력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 서방제국에 대한 악연이나 증오심의 정도, 자살공격에 대한 열정과 순교에 대한 각오,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한 충실성 등이 주로 고려된다. 모든 지원자들은 테러조직의 지도부와 면담을 통해 순교에 대한 열정과 각오, 특히 자살공격을 감행할 직접적인 동기의 트라우마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살폭탄테러공격자로 선정되면 수개월간의 종교적 이념교육과 기술적 테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당위성과 용기, 정치적 동기가 부여되고, 종교적 이념의 세뇌화와 담력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런 메카니즘을 분석한 심리학적 테러리즘 학자 Ariel Merari는 정보차단과 외부와의 격리를 통해 심리적 변화를 유도 강력한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터널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자살테러의 1차 책임이 자원자에게 있다기보다는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조직에 있다고 보았다. 무장테러조직은 보통 카리스마적인 훈련자가 3~6명의 단위 조직을 만들어 이들이 강하게 결속하고 함께 목숨을 바치도록 만든다[31]. 터널처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시야를 출구라는 한점에 일치시키는 중도에 이탈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평범한 인간이 종교적 세뇌에 의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동체의 영웅으로 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이슬람 자살폭탄테러 범죄시행의 주된 메카니즘은 종교적 이념에 지나치게 융합되어 자아가 함몰된 영웅적 순교심리, 개인적인 모욕이나 원

한에 대한 응징과 복수심에 의한 이타형 자살(altruistic suicide)심리의 자원자이거나 극단적인 무장단체에 의해 외부와 차단되고 사육 세뇌되어 왜곡된 종교적 사생관이 형성된 미소년들로서 영웅적 순교심리와 공동체 문화의 집단양심의 부추김, 테러집단의 심리적 강요와 물리적 협박 등에 의해서 작동하는 자살공격 메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4.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대비책의 논의

4.1 자살폭탄테러의 세계적 확산 조짐과 대응 전략의 부재

사회집단이 종교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스스로를 성스러운 집단(신이 선택한 집단)으로 상대적인 종교집단을 부정적(이단, 이교도, 배교도 사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설정에서 자존심을 훼손당한 복수와 자기이익의 추구는 거룩한 명분으로 여기며 이를 위한 모든 폭력도 정당화하게 된다[32]. 특히 전통적으로 이슬람은 세계를 대립하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며, 지하드의 투쟁이 종교의 내적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계시에 근거한 실천적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격적인 군사적 정벌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32]. 이런 종교 문화적 전통이 비국가 이슬람무장테러단체가 세계적 테러대응국가와의 비대칭적인 전쟁의 상대로 나서게 하고 있으며, 순교자적 자살폭탄테러로 확산되고, 세계적인 동일시로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도화된 문명과 정보통신은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자살폭탄테러의 자원자가 이슬람테러조직의 중심체인 IS로의 집결, 급격한 세력화와 서양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IS의 외국인 대원은 약 1만5,000명 정도로 이 중 IS에 가담한 터키인은 1,000명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33]. AFP통신에 의하면 미국시민이 시리아 정부군에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하였으며[34], 호주 국영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연방경찰(AFT)이 호주인 자살폭탄테러범의 수사에 착수했다[35]고 보도하고 있다. 이처럼 서방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자국민의 IS 등의 참여와 자살폭탄공격자원을 차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IS 등 이슬람 무장테러집단은 자살폭탄테러를 주요수단으로 그 세력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 독려를 위한 선전전을 강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자살폭탄테러가 종교적 이념으로 심화되고, 이슬람권의 문화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문명과 정보 통신의 발달은 무장테러집단이 세계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양상으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9.11 WTC 테러 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아직도 군사적인 응징과 보복작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작금의 현상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이 이슬람 무장단체의 점령지 탄환을 위한 지상군 투입 등의 군사작전 강화만을 검토하고 있다.

테러리즘의 본질은 정상적인 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저항이며 비대칭적 전쟁을 통한 정치행위이다.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일방적인 군사적 승리가 선언된 2001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십 수년의 실질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 의회에 보고된 테러발생 건수는 400여건에서 4000여건으로 증가한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2014.7.1.자)는 전체 자살폭탄 테러 중 4분의 3이 9.11 테러 이후 발생했고, 이라크를 공격한 이후 이라크에서만 무려 400여 건의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이는 이슬람테러 공격 중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역설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자살폭탄테러의 증오적 동기와 무장테러단체의 창궐로 자살공격 메카니즘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21C 벽두부터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이슬람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대안의 부재로 수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고도 소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테러에 대한 군사적 응징과 보복은 단기적인 테러의 방지나 테러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이다. 군사적 대응이 강력하면 할수록 한편에서는 수많은 증오적 자살공격 자원자와 극단적인 무장테러단체들의 회유와 세뇌에 의해 철저히 영혼을 파괴당하고 있는 자살공격 테러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종교적 근본주의와 자본주의적 탐욕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인류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태이다.

4.2 대테러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

테러와 이에 대한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은 인류사회의 숙명이 되어버린 듯하다. 테러리즘이나 테러와의 전쟁도 도덕성과 정의감에 대한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자살공격은 이길 수 없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최후의 수단이다. 일본의 가미카제 공격에 대응한 미국이 원폭 투하 결정과 같은 사태가 중동에서 되풀

이되서는 아니 된다[31].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테러에 대한 응징과 보복은 테러를 막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또 다른 수많은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 의한 자살폭탄테러의 자원자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Daniel Benjamin과 Steven Simon은 공동 저서인 「신성한 테러의 시대;The Age of Sacred Terror.」에서 인류사회가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주요 종교와 신흥 종교에서 극단적인 폭력 행위가 승배의 필수요소로 간주됨으로써 경쟁적으로 테러에 나서고 있으며, 테러범들은 테러행위를 신을 대신하거나 신의 명령이라고 믿고 있다[36]고 말한다. 이는 자살폭탄공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은 무력적 응징이 아니라 종교적 이념의 대립과 문화적 단층을 해소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명의 고도화는 인류의 활동방식의 혁신적 진화와 풍요를 가져왔지만 현 인류사회는 위협의 사회라고 칭할 정도로 각종 위해요인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빈부의 격차로 인한 풍요속의 빈곤, 소외지역과 계층의 증가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테러의 발생과 근절을 위한 노력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치명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목표와 저비용 고효율의 위해방법을 제공하였으며, 빈곤에 의한 가난과 무지의 소외계층이라는 테러지원자의 공급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살폭탄테러의 시행과정에서 소위 터널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조직과 가난과 무지의 소외계층의 결합에서 나타난 비극적 현상이다.

따라서 자살폭탄테러에 대한 논의는 테러범의 범죄심리적 동기에서부터 테러환경과 자살폭탄테러가 시행되는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보복을 위한 군사행동과 종교적 대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등에 대한 군사적지원은 이슬람권의 종교이념적 자존심에 손상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37]는 점을 인식하고, 직접적인 테러 차단과 무장테러집단의 소탕, 자살폭탄테러의 시행 메카니즘을 와해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십 수년의 군사력 위주의 대테러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런 노력과 비용을 종교적 이념대립의 해소를 통한 극단적 집단융합사고의 완화, 전쟁의 후유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쟁피해자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개인적 원한에 의한 복수심리의 회석, 빈곤에 의한 소외계층의 해소를 위한 경제지원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와 정책의 설정

에 투자하고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자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자살이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재 인간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17]. 꾸란과 하디스에 의하면 순교란 자살에 의해서가 아닌 이교도와와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거나 죽는 것이라는 점이 아주 명백하다. 극단테러단체의 홍보차단과 세뇌과정의 와해 대책이 요구된다.

5. 결 론

현대테러리즘은 문명의 발전과 국제사회구조를 반영하면서 개념과 수단 방법 등이 진화하고 있다. 현대 테러리즘의 특징은 테러리즘이 비국가 무장단체의 국가를 상대로 한 전쟁의 수단으로 진화하였으며, 자살폭탄테러는 테러를 통한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조직의 전략에 부합됨으로써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살폭탄테러범의 범죄심리적 동기에는 이타형 자살(altruistic suicide)심리로 시행동기는 종교적 집단 몰입에 의한 지하드, 개인적인 원한이나 모욕에 대한 응징과 복수, 가난과 무지, 소외계층의 반감 등을 이용한 극단적 무장세력의 세뇌과정과 협박에 의한 강요의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자살폭탄테러범의 범죄심리적 동기의 특성에 대비하여 현 상황에서의 자살폭탄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핵심적 요구사항은

대테러전쟁이라는 명분의 비국가적 전쟁주체와의 비대칭적 전쟁을 거부하여야 한다. 군사적 무력행사를 특수한 경우 국지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영웅적 자살폭탄 공격에 의한 비국가적 전쟁주체의 에너지 충전여건을 줄여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종교적 이념대립에 의한 문화적 단층을 해소해야 한다. 타 종교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인식을 버리고 공존해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적 문화적 단층해소를 위한 국제합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이슬람국가나 팔레스타인 국가의 형성과 이스라엘과의 공존은 테러를 줄여나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인도적 경제지원을 통한 대테러전쟁의 후유증 해소와 가난과 무지의 소외계층을 구제함으로써 자살폭탄테러범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대책이 요구된다.

다음은 자살에 대한 의식전환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종교적 사생관을 재정립하는 학문적인 해법이 요

구되며, 극단적 무장단체의 선전과 세뇌과정의 메카니즘을 차단하는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

인류의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기 노력은 무력에 의한 조금한 정책을 십 수년간 실행하여 왔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자살폭탄테러라는 극단적인 위협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살폭탄테러의 예방은 자살폭탄테러범의 심리적 동기를 고려하여 병리현상의 치료와 같은 개념으로 종교적 이질감과 문명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함으로써 자살공격의 기반을 줄여나가는 점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1] 공진성, 『테러』, 106 24-30, 서울: 책세상, 2010.
- [2] 프레시안 뉴스, 그들은 왜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하는가, 뉴스입력 2014년 9월 11일 18:37. 2014년 9월 11일 검색.
- [3] 최기남, 중동테러리즘의 대두와 전망, 『경호경비연구』, 10:409-441 737 437, 2005.
- [4]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17, 서울: 대영문화사, 1997.
- [5] 박진희, 뉴테러리즘 시대의 테러 의미 정립과 테러 유형분석, 『국립방재연구원』, 123, 2012.
- [6] 위키백과, 테러리즘, 2014.10.8.검색.
- [7] Eric Hobsbawm.; 이원기 역, 『Globalisation Democracy and Terrorism; 폭력의 시대』, 26, 서울:민음사, 2013.
- [8] 최기남, 미국의 대외안보전략에 대응한 이슬람테러리즘의 전술적 진화,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517-534 525 527, 2007.
- [9] 권춘 편저, 『대테러 세계대전-미국이 주도하는 21세기 패권전쟁의 실체』, 6, 서울:한림미디어. 2002.
- [10] Charles Townshend, 『A VERY SHORT INTRODUCTION; TERRORISM』, 12 13,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11] Klaus Schlichte.; 이유경 역, 『누가 무장단체를 만드는가』, 24, (주) 현암사, 2010.
- [12] 최진태, 『대테러학원론』, 293, 서울: 대영문화사, 2011.
- [13] 강욱·전용태, 자살폭탄 테러자의 동기와 효율적 대처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3;

- 7-25, 2012.
- [14] 최진태,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229-238, 서울; 대영문화사. 2006.
- [15] Crenshaw, Martha, 『Suicide Terrorism in Comparison Perspective』, chapter 2 of the Countering Suicide Terroris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25, Herzlia, Israel, 2001.
- [16] 김동기 외 11인, 『심리학 개론』, 43, 서울; 양서원, 2000.
- [17] Emile Durkheim,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Routledge & Kegan Paul Ltd, 184-361 362, 1952.
- [18] 김창호, 김세진, 테러리스트의 심리적 동기 및 테러발생원인 사례분석, 『한국치안행정 논집』, 9(2);73-95, 2012.
- [19] 뉴욕타임스 뉴스, 자살테러 용의자들의 심리, 2009년 8월 12일자 보도.
- [20] 한국경제, “자살폭탄범, 광신도 아닌 보통 사람”, 2004.5.13.자 보도.
- [21] 오카다 다카시; 황선중 옮김,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들』, 서울;어크로스, 2013.
- [22] Michael W. Eysenck; 이영애·이나경 역, 『Simply psychology; 간단명료한 심리학』, 89,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04.
- [23]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115, 서울; 박영사, 2013.
- [24] 크리스천투데이, 이슬람 전문가 무슬림, 지하드-테러 구분 불가, 2013.10.25. 17:55 보도입력.
- [25] 로레타 나폴레오니;이종인옮김, 『모던 지하드; 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 422, 서울;시대의 창, 2004.
- [26] 연합뉴스, 소말리아 자살폭탄테러로 민간인 사망...美공습 보복성격, 2014.9.9.자 보도.
- [27] 마르코스 외 6인 ;박정훈 외 역, 『게릴라의 전설을 넘어』, 8-9,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 [28] KBS 기획보도, 자살 폭탄테러로 내몰리는 아이들, 2013.3.30. 보도.
- [29] 연합뉴스, IS, 정신장애아 자살폭탄 공격에 이용 <유엔보고서>, 2015.5.22.자 보도.
- [30] Klaus Schlichte, 『In the Shadow of Violence』. Campus Verlag GmBH, Frankfurt/ Main(Klaus Schlichte, 32-34 36, 2009.
- [31] THE SCIENCE, 자살테러범이 비정상인? 미 사이언스 테러범 심리분석, 2003.3.31.자.
- [32] Bruce Lincoln;김윤성 역, 『Holy Terror;거룩한 테러』, 10 81-82, 서울;돌베개, 2005.
- [33] 한국일보, 이슬람국가(IS) 확산, 터키가 수상하다, 2014.10.18.자 보도.
- [34] 뉴시스, 첫 미국인 자살폭탄테러범 거사결의 동영상 공개, 2014.7.27. 자 보도.
- [35] 연합뉴스, 첫 호주인 자살폭탄 테러범 등장...경찰 수사 착수, 2014.9.13.자 보도.
- [36] Richard A Clarke;황해선 역, 『Against All Enemies; 모든적들에 맞서』, 342, 서울; 휴먼 앤 북스, 2004.
- [37] 존 준커먼. 다케이 마사카즈 편/홍한별 옮김, 『노엄 촘스키와의 대화; 권력과 테러』, 145-147, 서울; 양철북, 2003.

[저 자 소 개]



최 기 남 (Choi, Kee-Nam)

1979년 2월 학사
2000년 8월 석사
2005년 2월 박사

email : cknaml@yahoo.co.kr.